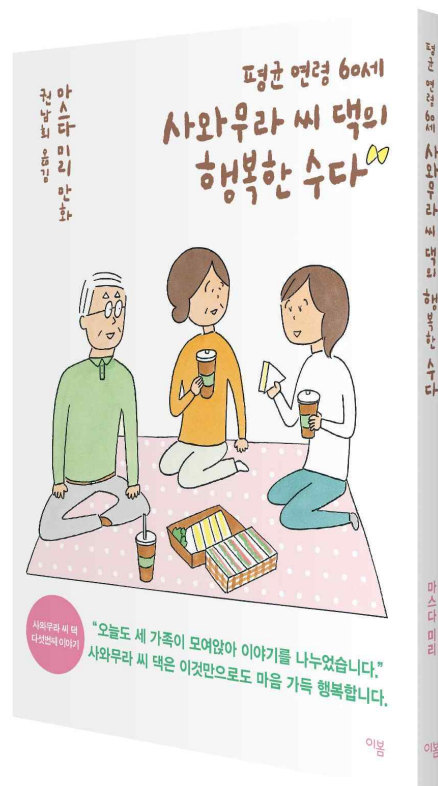


평균 연령 60세 사와무라 씨 댁의 행복한 수다

마스다 미리 만화



★독자들이 손꼽는 가장 따뜻한 마스다 미리 만화 시리즈!★

★일본 최고 발행부수 주간지 <슈칸분슌>에서 10년 넘게 연재중인 인기작!★

원제 : 沢村さん家のたのしいおしゃべり

지은이 : 마스다 미리 || 옮긴이 : 권남희

분야 : 만화 || 발행 : 2022년 3월 7일

형태 : 148*210 (무선) || 면수 : 144면 || 가격 : 12,000원

ISBN : 979-11-90582-58-2 (07830)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55-3 || 031-955-9981~3 || ejlee@yibombook.com

문의: 편집부(이은주) 031-955-9981 || 마케팅부 031-8071-8671

이봄

● 도서 소개

**“오늘도 세 가족이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와무라 씨 덕은 이것만으로도 마음 가득 행복합니다”**

일상을 어루만지는 다정하고 섬세한 이야기로 언제나 독자들에게 단단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가 마스다 미리의 신작이 출간되었다. 평균 연령 60세 고령화 가족의 가슴 찡한 일상을 그린 <사와무라 씨 덕 시리즈>는 일본 최고 발행부수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에서 10년 넘게 인기리에 연재중이며, 마스다 미리 작품 중에서도 뭉클하고 따뜻한 작품으로 독자들이 손꼽는 만화이다.

이번에 출간하는 5탄 『사와무라 씨 덕의 행복한 수다』에서 가족들의 나이는 전작 1~4탄과 같다. 정년퇴직을 한 뒤 운동과 영어회화 공부에 열심인 70세 아버지 시로 씨, 요리를 잘하고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진 69세 엄마 노리에 씨, 퇴근 후 동료들과 먹는 맛있는 디저트가 행복인 40세 딸 히토미 씨는 여전히 한집에 살고 있다. 세 사람은 일상에서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두루 맞이하며 함께 걸어간다. 세 가족 각각의 시선으로 그려진 보통 날들은 ‘맛아 맞아’ 하는 공감과 찡한 감동을 주는 반짝이는 장면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유쾌한 고령화 가족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사와무라 씨 덕> 시리즈는 마스다 미리 만화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느낄 수 있는 내밀한 감정을 가장 잘 보여준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복잡하고 특별하다. 가장 가깝고 편하면서도 그 속에 애트함과 미안함이 존재한다. 이 시리즈에서는 노년이 된 부모님과 40대 딸이 함께 살면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각자의 세계를 존중하지만, 거실에 모여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을 공유하는 사와무라 씨 덕. 마스다 미리는 이 책에서 새로운 고령화 가족의 형태에서 보이는 적당한 거리감, 나이에 대한 존중과 인정,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설정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제시하며, 가족 내에서도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사와무라 씨 덕을 보다 보면 ‘이렇게 유쾌한 고령화 가족이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자연스레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떠올리게 된다.

우리가 마스다 미리의 만화에서 얻는 선명한 행복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적인 일들이 어려워진 요즘이다. 당연하게 여겼던 행복은 어느 순간 실감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럴 때 마스다 미리의 세계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매일이 행복할 순 없다. 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을 떠올릴 순간들로 가득하다.” 초여름에 훅 다가온 무더운 공기를 느끼며 어쩐지 매년 반복되는 계절에 안심하게 되고, 지친 퇴근길에 하늘에 뜬 무지개를 찍어 가족에게 전하려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보고서는 어렸을 때 선물한 지갑을 소중히 오래도록 써주신 뭉클한 마음을 떠올리게 된다.

이런 순간들을 보다 보면 답답했던 마음에 한 줄기 산들바람이 부는 듯 상쾌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힘든 일상 속에서도 이런 순간들을 떠올리며, 식구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행복한 수다를 나누며 살아간다면,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지 않을까, 라고.

● 책 속에서

히토미 씨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중학생 때, 어버이날에 드린 명함지갑이네…….
용돈 모아서 산 건데 지금 보니 싸구려 같네.”
이렇게 될 때까지 쓰셨구나.
그런 아빠도
이제 명함지갑이 필요 없어지고
직함도 없어지고
하지만 영원히 나의 아빠라고
히토미 씨는 생각했습니다.

_본문 15~16쪽

“엄마는 말이야.”
“응?”
“예순아홉 살이면 어떤 느낌이야?”
“어떤 느낌?”
내가 예순아홉이란 느낌이 들지 않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아, 근데 딸 나이를 생각하면
나도 늙었구나 싶기도 해.”

_본문 42~43쪽

“봄이나 가을 기운이 느껴질 때 말이야.
약간 쓸쓸하면서도 좀 기쁘지.”
“뭐랄까. 반가워, 그치.
‘이 느낌 알아’ 같은.
이런 게 말야, 안심이란 걸지도 모르겠어.”

_본문 46~47쪽

생물이란 늙어가는 거구나.
‘허무해.’
이 허무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하고 히토미 씨는 잠시 생각.

아니다, 어디에서도 아니다.
‘마음에서 오는 거야.’
내 마음에서 찾아온 ‘허무함’을
죽음을 알고 있는 인간인 이상 마주할 수밖에 없어.
등등 생각하다가
새로운 케이크 가게를 발견하고 가슴이 설레는
히토미 씨였습니다.

-본문 86~87쪽

“이렇게 세 개 맞으시죠?”
“네.”
“여보, 고마워요.”
“히토미도 좋아하겠지.”
시로 씨는 상자 속에 기대듯
나란히 있는 세 개의 케이크가
마치 지금의 사와무라 씨네 같아서
앞으로 한참은 이대로 있고 싶다고 생각하며
3월 하늘 아래를 걸었습니다.
“아, 날씨 좋다.”

-본문 93쪽

여름 내음이 나네.
그게 어느 해 여름이었더라.
나한테는 일흔 번의 여름이 있어서.
즐거운 여름도 있었다.
결혼하던 해의 여름
부모가 되어 처음 맞은 여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여름이었지.
몇 개의 여름을 경험하고,
몇 개의 여름 내음을 맡아왔구나.

-본문 120~121쪽

모두 모여서 식사나 대화를 즐기는 것.
그런 당연한 것이 어떤 이유로
만약에 갑자기 온 세상 사람들에게서
사라진다면…….
‘그런 일이 있을 리 없겠지.’
“저기. 차 한 잔 더 마실까?”
“좋네.”
“그러게.”

-본문 140~141쪽

● 지은이

마스다 미리 益田ミリ

1969년 오사카 출생.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반짝임을 발견해내는 작가.

그 반짝임으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마스다 미리는 만화, 에세이, 그림책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썼다.

최근 국내 출간작으로 에세이 『생각하고 싶어서 떠난 핀란드 여행』 『행복은 이어달리기』 『이제 아픈 구두는 신지 않는다』, 만화 『오늘도 상처받았나요?』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수짱 시리즈 5탄) 『오늘의 인생 2: 세계가 아무리 변해도』가 있다.

「평균 연령 60세 사와무라 씨 덕 시리즈」는 〈슈칸분순^{週刊文春}〉에 10년 넘게 연재중이며, 지금까지 5권의 책으로 발간되었다.

● 옮긴이

권남희

일본문학 전문번역가 겸 에세이스트.

지은 책으로 『혼자여서 좋은 직업』 『귀찮지만 행복해 볼까』 『번역에 살고 죽고』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유즈키 아사코의 『버터』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자가 말을 건다』, 마스다 미리의 『차의 시간』 『평범한 나의 느긋한 작가생활』, 무라카미 하루키의 『반딧불이』 『샬러드를 좋아하는 사자』 『무라카미 T』, 무레 요코의 『카모메 식당』 『모모요는 아직 아흔 살』, 오가와 이토의 『라이온의 간식』 『츠바키 문구점』, 히가시노 게이고의 『질풍론도』 『숙명』 외에 300여 권이 있다.